



## 2020년 사순절

# 주의 십자가가 사랑하리...

2월 26일(수) ~ 4월 11일(토)

### 가정예배 주간묵상집

- 첫째주 -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2/26 재의 수요일	27 2일	28 3일	29 4일
3/1 사순절 1주	2 5일차	3 6일차	4 7일차	5 8일차	6 9일차	7 10일차
8 사순절 2주	9 11일	10 12일	11 13일	12 14일	13 15일	14 16일
15 사순절 3주	16 17일	17 18일	18 19일	19 20일	20 21일	21 22일
22 사순절 4주	23 23일	24 24일	25 25일	26 26일	27 27일	28 28일
29 사순절 5주	30 29일	31 30일	1/4 31일	2 32일	3 33일	4 34일
내적치유 부흥사경회(29~31)						
5 종려 주일	6 35일	7 36일	8 37일	9 38일	10 39일	11 40일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6~10)						
12 부활 주일	=> 총동원주일					

# 주간묵상집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 1. 가정예배

- ①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합니다.      ②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
- ③ 묵상한 내용을 서로 나눔      ④ 묵상 글을 함께 읽습니다.
- ⑤ 묵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심기도합니다.

## 2. 하가다

- ① 반드시 소리내어 합니다.      ② 매일 반복합니다.
- ③ 집중해서 합니다.      ④ 믿음으로 합니다.
- ⑤ 단순하게 합니다. (여러 구절보다는 한 구절을 3천 번 읊조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주의 하가다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마 17:5)

## 3. 중보기도

- ① 우리 자신과 가정과 나라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따르지 않고 탐욕과 무절제한 생활을 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 ②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이길 힘을 주옵소서.
- ③ 확진자와 그 가족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온 나라가 지혜롭게 대처하여 코로나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옵소서.
- ④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방역당국, 의료진,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할 있도록 힘을 더해 주옵소서.
- 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가 무너지게 하시고, 거짓 복음에 메여있는 모든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 주옵소서.
- ⑥ 이번 사태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영적으로 깨어 새롭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시 139:1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

첫 날부터 넷째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무엇을 행하시며, 사람은 무엇이며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묵상합니다.

시편 139편은 4단락으로 구분됩니다. 1-6, 7-12, 13-18, 19-24

첫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현존(現存)과 전지(全知, 모든 것을 아심)는 인간의 행동반경과 그 육체에 이르기까지 온통 인간을 감싸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내 자신에게 가까운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며,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의 핵심부에서 나에게 존재와 의욕, 그리고 행동을 허락하고 계신 분입니다.

둘째 단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곳이나 계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으며,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피하여 달아날 곳도 없습니다.

셋째 단락에서 우리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랑으로 자녀를 출산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사랑의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넷째 단락은 시인의 기도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살피시어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살이 살펴보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고통받을 길을 가고 있거나 않은지 나를 살펴보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 8:1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

하나님은 어디에나 현존하십니다. 하늘과 달, 태양과 별들에도, 깊은 바다 속과 동물들의 무리와 거울에 소복소복 내리는 눈 속에도 그분은 계십니다. 대자연의 이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그분의 뒤따를 수 없는 부드러움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인 그분, 따라서 그분은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당신의 현존의 흔적을 남기시는 분입니다. 돌풍의 힘센 바람을 만날 때 오는 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가을 날 아침마다 내리는 서리도 나에게 하나님의 자상한 사랑과 보살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시편 8편의 시인은 자기 시의 처음과 끝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에 대한 놀라움과 동시에 기쁨의 환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창조된 이 세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그런데 시인은 5절에서 우주와 그 삼라만상 가운데 사람이 절정이요 으뜸가는 존재란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4절에서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창조한 온 피조세계를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찢먹이와 어린 이들의 찬송을 통하여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2절)

주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주께서 친히 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시 1: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

시편 1편은 인간의 자유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갈래의 길, 곧 삶과 죽음,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성공과 실패를 첨예하게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인간은 말할 것도 없이 삶을 선택하여, 어리석음과 멸망의 길을 배척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물이 풍부하게 흐르는 시냇가에 굳건히 뿌리내린 거목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잎사귀가 시들지 않아서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흔히 나무는 수직선의 형상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뿌리가, 위에는 열매가 달린 과실수가 그의 모습입니다.

복된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성경을 밤낮으로 묵상하여 그 결과로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목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런 거목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악인의 모습은 복된 사람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리는 '겨'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곡식의 알맹이가 아닌 겨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는 정반대로 바람에 흩날리는 특성을 지녔고, 움직임도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입니다. 겨는 곡식알이 아니므로 뿌리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겨는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음을 표상합니다. 결국 악한 자들이 성공할 가능성이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참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복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엠편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

세계와 그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피조물을 통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은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계획은 역사 속에 대대로 이어지며 이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통해 보이는 존재들과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모두 사랑 안에 일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자 안에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운명이 위대하고 영원하며, 또 우리의 희망은 그 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따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디.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 사순절을 이렇게 보냅니다!

사순(四旬)이라는 말은 40일을 뜻하는 한자말로서, 사순절은 '봄'을 뜻하는 "Lent"로 불려지기도 한다. 봄에 이 절기를 지키기 때문이다. 사순절은 속죄일인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2월 26일)에 시작되어 성금요일(Good Friday, 4월 10일)의 슬픔과 비극 가운데 끝난다.

이 절기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회개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절기이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다.

사순절은 자기 근신과 금식의 기간 즉, 영적 훈련의 기간이다. 사순절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죽음으로 향해가는 순례로 이것에는 자기부인이 포함된다. 사순절에는 자신이 죽는 것을 배워야 한다.

### ● 실천사항 ●

- 1) 하가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시간을 정하여 사랑의 말씀을 읊조린다.
- 2) 기도 매일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 3) 금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식을 한다.  
기호식품(커피, 초콜릿, 담배, 술 등), 오락(스마트폰, 게임, 영화 등)을 삼간다.
- 4) 나눔 우리 주변에 아픔을 당하는 이웃과 친구를 찾아보고, 그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돕고, 복음을 전한다.